

# 原子力創業의 證人들

— 對話로 엮는 우리 原子力史 —

朴 益 洙

(本 協 會 會 長)

## 尹世元 編(4)

朴: 1960년 4월 19일에 소위 4·19혁명이 일어나면서 自由黨政權은 무너지고 새로 民主黨政權이 들어섰고, 이러한 政權交替에 따라 6월 29일 原子力院長이 金良洙씨로 교체된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記錄에 보면 9월에 原子力研究所소장 朴哲在 박사도 사임하고 原子力委員으로 계셨던 金東一 원자력위원이 소장서리로 임명되고 있었죠. 朴소장이 사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尹: 그렇게 좋지 않은 지나간 이야기를 여기에 상세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연구소의 庶務課長을 잘못 만난거죠. 그렇게 다루롭지 않은 금전적인 문제를 문제삼아서 자진 사표를 내고 그만두었습니다. 아주 섭섭하고 유감된 일이었지요.

朴: 그런데 記錄에 보면 朴소장이 그만둔 것이 60년 9월이고 金東一 원자력위원이 소장서리로 발령된 것이 60년 7월입니다. 다시 말하면 朴소장이 辭任하기 2개월전에 金위원이 소장서리로 발령된 겁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尹: 그것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朴소장이 자진 사표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원자력위원중에서 金東一 박사를 소장서리로 임명하게 되고 朴소장 문제는 9월에 가서 사임 결론이 났기때문에 그렇게 된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朴: 듣고 보니 朴소장이 그렇게 마음 편하게 그만둔 것이 아니군요. 어쨌든 名官이 되려면 부하를 잘 만나는 人福이 있어야 합니다. 나도 이런 직업, 저런 직업을 갖다 보니 사회생활에 있어서 부하직원을 잘 만나는 人福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군요. 그런데 金東一 소장서리도 2개월만에 崔相樂씨로 교체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尹: 그 때 원자력위원들과 연구소 연구관들과는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1개월에 한번씩 원자력위원들이 연구심사를 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오시는데 오시면 研究成果가 왜 없느냐고 따져요. 그러면 연구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연구機器·資材 등을 주문하고 정돈하고 연구의 기초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셔서 연구성과만 따지니 연구관들과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없었지요. 말하자면 원자력위원들은 연구관들에게 속된 말로 인기가 없었어요.

물론 金東一 위원도 소장할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 원자력연구소의 입장에서도 소장의 책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읍니다.

朴: 그러면 金동일 소장 후임으로 최상업 씨가 오

게 된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으로  
는 그 당시에 金泰鳳 박사나 尹박사님도 할 수  
있었을텐데.

尹: 그 당시에는 김태봉 씨나 나나 研究할 생각만  
했지 所長이 꼭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외부에서 좋은 분을 모셔오자는 공통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먼저 김태봉 씨에게 최상업 씨를 추천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했지요.

朴: 최상업 씨는 서로 모두 京都帝大의 先後輩 관  
계가 아닙니까. 그 관계가 서로 어떻게 됩니까?

尹: 그렇지요. 김태봉 씨는 농학부 농화학과를 졸  
업하고 최상업 씨의 2년 선배이며 최상업 씨는  
이학부의 화학과를 나보다 1년 먼저 졸업했고  
나는 같은 이학부의 우주물리학과를 졸업했습니  
다. 그런데 年수는 나하고 최상업 씨는 동갑입니  
다. 그러나 나는 延禧專門 4년을 졸업하고 최상  
업 씨는 高等學校 3년을 졸업하고 들어갔기 때  
문에 연령은 같지만 졸업은 1년 늦게 됐습니다.

朴: 朴哲在 소장도 京都帝大라고 알고 있는데 朴소  
장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尹: 세 사람 중에 대선배지요.

朴: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만 최상업 씨  
를 제의한데 대한 김태봉 씨의 반응은 어땠습니  
까?

尹: 별로 적극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반대하지는 않  
았습니다. 원래 서로 잘 알고 친한 사이니까 들  
어오면 그래도 누구보다 서로 잘 협의되고 잘  
협력될거라 생각하고 반대하지 않았던 거죠.

朴: 그 때 최상업 씨는 어디 있었습니까?

尹: 文敎部 技術教育局長으로 있었습니다.

朴: 바로 朴哲在 소장의 후임으로 들어간 겁니까?

尹: 아닙니다. 朴소장이 기술교육국장을 사임한 다  
음 다른 분(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음)이 후임  
으로 있다가 4·19학생혁명이 일어나서 過渡內  
閣때 그 사람 다음에 최상업씨가 미국에서 學位  
를 마치고 돌아와서 大學으로 가지 않고 곧 기술  
교육국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朴: 소장으로 오게하는 교섭은 어떻게 이루어졌습  
니까?

尹: 제가 한 두번 직접 찾아가 만났습니다. 김태봉  
씨하고도 협의되었는데 원자력연구소 소장으로  
와서 같이 일하는 것이 어떠냐고 의향을 물어  
보았지요.

朴: 그 때에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尹: 처음에는 사양하지요. 내가 이젠 大學으로 가  
야지 그런 중요한 자리를 내가 어떻게 맡을 수  
있겠느냐고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의  
를 정말 싫어하는 기색이 아니라는 감을 잡고  
그런 정도로 의향을 타진한 다음에 다시 찾아가  
서 양해를 받고 金良洙 院長을 찾아갔습니다.

朴: 그 때 혼자 갔습니까?

尹: 네, 혼자 갔습니다. 최상업 씨에 대한 내 나름대로  
의 소개를 하고 그 분이 소장으로 오면 연구  
소도 연구관들과의 단합도 잘 되어 잘 일해 나  
갈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이것은 김태봉 씨하  
고도 충분히 협의한 겁니다 하고 설명했지요.

朴: 그 때의 金院長의 처음 반응이 어땠습니까?

尹: 그렇게 반대하는 기색은 없었고 尹부장이 추천  
한 분이니 틀림없겠지요 하면서 다만 그 말대로  
모든 연구관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분이냐고 반문하는 정도였습니다.

朴: 그 때에 다른 측면에서 추천된 분이 없었습니  
까?

尹: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내가 가서 그렇게 추천  
한 다음, 하루 이틀 사이에 發令난 것으로 기억  
합니다.

朴: 그러한 특별한 관계이고 또 연구소 쪽에서 그  
렇게 먼저 교섭하고 추천해서 들어오신 분인데  
얼마되지 않아 원자력원은 물론 최소장하고도  
크게 등지고 불편한 관계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尹: 그 문제는 참 여러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  
데 처음에는 최상업 씨도 협의적으로 잘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김태봉 씨나 나나 또 잘 어울려  
서 의의 좋게 잘 지냈는데 그러다 시간이 지나  
면서 자연히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문제가 생  
긴거죠. 자연히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연령같으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감정이 아니 되었을 텐데, 그 때에는 김태봉 씨  
와 최상업 씨 사이에는 先後輩의 感情도 있고  
그러한 미묘한 감정의 배경때문에 더욱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  
에는 후배되는 최소장에 대해 김태봉 씨의 노골  
적인 감정표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래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는 먼저 김태봉씨를  
찾아가서 의논하게 되는데 그 때에 자주 최소장  
에 대한 감정을 거리낌없이 말하곤 했어요. 한편,  
그 때의 연구관들은 최소장이 무엇을 지시하면 잘

움직이지 않아도 내 말은 잘 순종하는 편이어서 이러한 관계때문에 또 나하고 최소장의 관계도 나빠졌읍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연구소 내부의 분쟁은 이러한 삼각관계의 대립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朴: 그러니까 최소장과 김태봉 씨와의 관계악화는 선후배관계의 감정이 크게 작용했고 최소장과 윤박사와의 관계악화는 명령체계의 불만에서 생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

尹: 처음에는 대체로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또 원인이 되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서울대학교 물리대 교수시절로 가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당시 물리대 화학과의 교수가 두 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두 파라고 해서 잘못표현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어쨌든 대립된 두 그룹) 한 쪽은 김태봉, 이종진(김태봉 씨의 처남), 다른 쪽이 김순경, 최기원이었는데 이때 최상업 씨는 어느 쪽도 아닌 중간의 입장(그러나 김순경 씨와 더 친분을 가졌음. 그래서 내가 최상업 씨를 소장으로 제청했을 때, 김태봉 씨는 처음부터 무조건 찬성한 것은 아니었음)에서 양쪽에 그렇게 모나게 치신 하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파이클럽”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최상업 씨가 완전히 김순경 씨와 친근하게 되었고 김순경 씨와 친근하게 되었기 때문에 김태봉 씨와의 관계가 더 나빠졌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朴: 그런데 그 “파이클럽”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핵심 멤버입니까?

尹: 주로 미국에서 博士學位 받은 사람들 그룹인데 그 핵심 멤버는 崔亨燮, 崔相業, 沈文澤, 韓相準, 咸仁英, 金舜敬 등이 있습니다.

朴: 그 代表者가 누구였읍니까. 김순경 씨는 그 때에 한국내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尹: 代表라고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崔亨燮 씨가 中心이라 볼 수 있지요.

朴: 그 때 최형섭 씨가 무얼하고 있었읍니까?

尹: 미국 미네소타大學에서 學位받고 돌아와서 大學에 가지 않고 처음에 무슨 自動車會社의 工場長으로 있었는데 했습니다.

朴: 그러면 최소장과 불화가 계속된 것과 “파이클럽”과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있는 겁니까?

尹: 연구소의 내분이 “파이클럽”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최상업 씨를 소장으로 추천해서 소장으로 오게 할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집단지도체제로 서로 협의해서 잘해 나가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앉아서 잘 협의된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고 날이 바뀌어지면 협의한대로 하지 않고 약속이 달라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 또 “파이클럽”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저렇게 하는구나」하고 해석을 하는 거지요, 실제 “파이클럽”이 당시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연구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지 또 최소장자신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파이클럽”에 가서 상의한 것인지 한 것은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최소장이 “파이클럽” 사람들과 우리보다 더 밀접하게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구소에 관한 이야기를 거기에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지요.

朴: 그것은 자연히 그렇게 되었을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연구소에는 믿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므로 고립감도 생기고 외로움도 생겨서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를 찾게되지 않았겠읍니까. 그러나 “파이클럽”의 뜻에 따라 연구소의 파위에 의식적으로 대항하며 일하겠다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단정해 말할 수 있는지요.

尹: 의식적으로 대항한다는 것은 적당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시 최소장으로서는 같은 “파이클럽” 사람이나 혹은 어떤 힘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원했을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배후에 “파이클럽”이 있었다는 것은 큰 힘이 되었을 것은 틀림없는 일이지요.

朴: 그러면 그러한 사항에서 최형섭 씨가 연구소의 1급 연구관으로 발령된거군요.

尹: 그렇습니다.

朴: 그렇게 들어 오게 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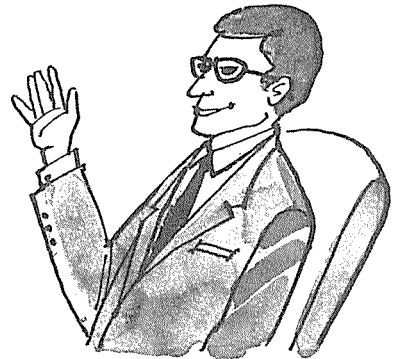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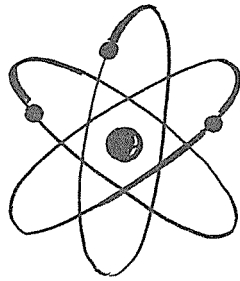
尹: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연구소 안에서 최소장이 김태봉 씨와 나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또 연구관들에 대한 명령체계도 잘 서지 못하니깐 어떤 의미에서는 고립감도 느끼고 소장의 직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김태봉 씨나 나와 맞췄을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나도 최소장의 입장에 있었다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朴: 그래서 최소장이 최형섭 씨를 연구소로 끌어들이려 했어요.

尹: 그렇습니다.

朴: 발령된 과정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尹: 글썬요. 그 경위를 말한다면 김태봉 씨나 나나 전혀 모르게 들어 온 거지요. 김양수 원장을 설득해서 우리 모르게 감쪽같이 발령한 거죠.  
 朴: 어느 연구부로 발령된 겁니까?  
 尹: 원자로부에 1급으로 발령됐습니다.  
 朴: 당시 원자로부의 부장은 윤박사님이 아니십니까?  
 尹: 그렇습니다. 원자로부의 T/O로 1급 하나가 있는 것을 부장과 아무런 상의나 예고도 없이 써버린 거죠.  
 朴: 사실 그렇게 했다면 윤박사님은 물론이지만 연구관들도 참을 수 없는 배신감같은 것이 생겼겠습니다. 어느모로 보나 그 1급은 원자로부의 T/O로 남겨둔 것이고 또 언젠가는 윤박사님이 가져야 할 T/O를 아무 협의없이 외부사람에게 주었으니, 그것은 큰 충격이요 큰 증오심을 갖게 하였을 것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尹: 그러니까 연구관들도 모두 「이거 안되겠다」하고 배척운동이 일어난거죠. 그 때 최소장이 아주 궁지에 몰렸었습니다.  
 朴: 그런 상태에서 최형섭 씨가 그 발령을 받고 곧 연구소에 출근했었습니까?  
 尹: 발령 즉시 출근하지 못했는데 하루 연구소에 나왔기에 그 때 제가 만났습니다. 최상업 씨는 원래부터 잘 아는 사이지만 최형섭 씨는 한번 어떤 장소에서 만나 인사한 일이 있어서 자진해서 만났지요.  
 朴: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尹: 그 때 이야기한 요점을 말씀드리면 「최박사가 연구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는 내 개인적으로는 반대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연구라는 것은 어떤 파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력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모두 반대하는 사항이니 자퇴해 주는 것이 어떻소」하고 자진 사퇴를 권유했습니다.  
 朴: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尹: 그것을 알아듣지 못할 분은 아니고 그것에 대한 답변보다 자신의 의중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연구소에 들어오려고 한 것은 우리나라 연구기관의 실정으로 보아 아무래도 原子力研究所가 제일 좋은 곳이라 생각하고 있고 현재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연구하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시간낭비하지 않고 연구시설이 좋은 곳에서 하루 빨리 연구하고 싶은 생각에서 연구

소로 가는 것을 결심했던거라고 말하더군요.  
 사실 그 후에 보니까 계속 열심히 연구하는 것을 보고 당시에 최형섭 씨가 연구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인것 같았어요.  
 朴: 그런데 사퇴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尹: 내 말을 이해하여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자진 사퇴하겠다고 말한 것도 없이 그저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끝났습니다.  
 朴: 지금은 최상업 씨나 최형섭 씨하고 만나면 어떻습니까?  
 尹: 최상업 씨하고는 가끔 골프도 치고 만나면 다정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친분에는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형섭 씨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지만 만나면 반갑게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朴: 지금까지 말씀한 그런 관계에서 연구소 연구관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소장을 위시한 원장에 대한 저항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下廻上이 아닙니까?  
 尹: 그렇지요. 아마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제일 처음 下廻上한 것이 원자력연구소일겁니다.(같이 웃음) 그 때는 모두 자존심도 강하고 우월감도 있고 또 젊은 패기가 있어서 무서워하는 것이 없었어요. 더욱 자유당정권에서 민주당정권이 되면서 「자유야 바람」이 분것도 큰 용기와 계기를 준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 때에 좀 심하게 했다고 봅니다.  
 朴: 그렇게 말씀 듣고 보니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때 시절에 원자력관계 評論을 자주 쓰고 연구소분들과 紙上에서 論爭하기도 해서 연구소분들에게는 내가 별로 좋은 印象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인데 하루는 朴惠一 씨가 나에게 電話를 걸었어요.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어디서 만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지금의 團成社 근처에 있는 어떤 茶房을 가르켜 주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자력관계 평론은 자주 썼지만 당시에 연구소에 顔面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朴惠一이란 분도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그 때 세사람이 나왔다고 기억하는데 崔昌善 씨도 있었다고 기억됩니다.  
 그 때 나를 만난 목적은 新聞에 우리를 도와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원



原子力研究를 一生의 課業으로 결심하고 海外에서 訓練받고 工夫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原子力 院長이 우리 研究官중에 3級이상의 研究官에 대해 모두 辭表를 내라 명령하고 쫓아내려 하니 이럴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봉투에서 많은 書類를 내 놓았는데 보니까 陳情書, 建議書, 連判狀 및 聲明書 등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격렬한 투쟁의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웃음) 그것을 모두 주면서 좀 여론화 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原子力院의 危機-內紛의 收拾方向을 위하여」라는 題目으로 곧 써서 京鄉新聞(당시 與黨新聞이었음)에 게재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1960년 8월 10일자였습니다.

그 때 연구소의 요구사항을 보면 ① 原子力사업에 대한 無謀 無知 無能의 是正, ② 事大主義의인 人事行政의 배경, ③ 文書取扱系統의 문란과 決載書類의 수개월 유보문제, ④ 原子力院의 官僚의 職制의 개선 및 간소화, ⑤ 不正, 非行 및 越權을 자행하는 原子力委員의 總辭退와 院長 技監, 事務總局長 및 院과 所의 總務課長의 辭退 등이었습니다.

이 때가 싸움이 가장 極에 달한 때라고 보는데 최상업 씨가 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한 것은 1960년 9월이거든요. 한참 싸움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소장이 되셨더군요.

尹: 그랬을 때지요. 아주 어려운 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 6월에 鄭泰河 原子力委員이 소장으로 任命되고 최소장이 대신 原子力委員을 하였으니까 최상업 씨가 결국 8~9개월간 소장을 한 셈이지요.

朴: 鄭泰河 씨는 원래 朝鮮電業(株)理事로 계셨다가 民主黨政權 때에 原子力委員으로 옮겨왔는데 그 때가 1961년 2월이더군요.

尹: 네, 그때 아마 李宗日 原子力委員이 그만두고 그대신 들어왔을겁니다.

朴: 그러니까 1961년 5·16혁명이 나고 同年 6월 11일에 金良洙 院長대신 吳元善(당시 海軍大領) 院長이 새로 부임하면서 최상업 소장이 鄭소장으로 교체됐더군요. 그리고 10개월만인 1962년 4월에 정소장이 사임했는데 이것은 스스로 그만둔겁니까?

尹: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쩌면 자의半, 타의半이라고도 할 수 있을겁니다. 민주당 정권때면 모르지만 혁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소장의 능력으로는 연구소를 통괄하기 어려웠고 또 민주당정권의 배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취약점도 있어서 물러난 것으로 압니다. 그분이 그만둘 때는 벌써 나와 김태봉 씨는 이미 연구소에서 물러났으니까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朴:尹박사와 김태봉씨가 그만둔 것은 언제입니까?

尹: 1961년 8월 3일 입니다. 吳元善院長이와서 얼마되지 않아 그만두었지요.

朴: 이제 기억이 납니다. 혁명정부가 들어서면서 無能者, 蓄妾者 등 몇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각 行政部處에 人事委員會를 만들어 官吏들을 숙청한 일이 있었는데, 그 때에 그 人事委員會에는 民間人을 반드시 2人を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原子力院의 人事委員會에 民間人 두사람으로 서울大學校 醫科大學에 계신 奇龍肅 博士와 내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人事關係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원래

吳院長은 될 수 있으면 研究官들을 희생시키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研究所의 監督官으로 파견근무하게 된 李東渠 씨(당시 해병대 소령, 제대시에 중령)가 있었는데 院(吳院長)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동집 씨가 연구소의 사정과 내막을 제일 잘 아는 분으로 돼 있었고, 또 吳院長이 매우 신임했습니다. 먼저 기용숙씨가 연구관 6인에 대한 면직 제안을 했습니다. 그 6인이 이영재, 이진택, 박혜일, 박인용, 김종국, 최창선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이동집씨가 즉각 반대하더군요. 그 이유는 정부에서 해외에 교육훈련시킨 인재들을 그렇게 많이 해직시킨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니 좀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자고 해서 연기됐는데 그 사이에 방향이 바뀐 겁니다.

尹: 그런데 朴會長은 어떻게 吳院長과 그렇게 가까운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당시 알고 싶었던 문제였는데…….

朴: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야기가 좀 길게되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는 吳元善 씨나 李東渠 씨와는 전연 모르는 사이입니다. 오원선 씨가 院長으로 任命된 즉시 어떻게 저의 집을 찾아 왔었습니다. 당시 나는 上往十里의 작은 기와집에 舍費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日曜日에 그의 祕書와 함께 지프차를 타고 왔었어요. 집이 좁고 누추하기도해서 들어오라는 말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먼저 茶房에 가서 茶한잔 같이 하자고 권유하더군요. 그래서 같이 지프차를 타고 간 곳이 鍾路네거리 근처에 있는 陽地茶房 2층이었습시다. 결론은 原子力事業관계에 대해 전연 아는 것이 없으니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와 因緣을 갖게된 시초입니다.

尹: 아까 사임하게 된 이야기입니다만 나도 吳院長이 처음부터 자신의 결심으로 나와 김태봉 씨를 그만두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날 吳院長이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밑에 있는 研究官 여섯사람을 면직시키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장래성있는 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보다 저를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하고 반대한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그렇게 반대하고 권유해서 그랬는지,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랬는지, 혹은 院長 가까이 있는 이동집 씨나 최상업 씨의 말을 듣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혁명정부가 들어서면서 公務員再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받으러 가라고 해서 가 있는

동안에 최상업 씨, 김태봉 씨, 그리고 나 세사람을 해직시켰더군요. 그 때는 아주 섭섭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나로서는 잘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 그래서 교육받고 와서 그대로 출근 안했습니까?  
尹: 그렇지 않고 최상업 씨는 그대로 나갔고 연구소에서 퇴임식을 했는데 김태봉 씨는 아주 화를 내고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극단의 말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고별인사를 할때는 거의 모두 울었습니다.

朴: 어떤 내용으로 고별인사를 했습니까?

尹: 지금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우리 연구소에 분규가 일어난 것은 외부에 원인이 있었다기보다는 내부에 기생충같은 병균이 있어서 분규가 생긴 것이므로 그 병균을 도려낸 것이니 잘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고, 앞으로 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을 했습니다.

朴: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그러던데요. 「내가 죽으면 나를 原子爐建物 뒷 산에다가 묻어달라」고.(같이 웃음)

朴: 그런데 연구소를 韓雷에 모두 팔아버렸으니 그 마지막 遺言도 실현되기 어렵게 됐습니다.(같이 웃음)

尹: 그러면 그 原子爐들은 모두 어떻게 한다는 계획으로 돼있습니까? 알고계십니까?

朴: 글썬요. 제가 들은것은 그 때때당시에 TRIGA-MARK-II 는 거의 이용하지 않으므로 곧 廢爐처분하고 TRIGA-MARK-III는 연구소에서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尹박사님께서 제가 그 原子爐의 연구보존을 위해 建議書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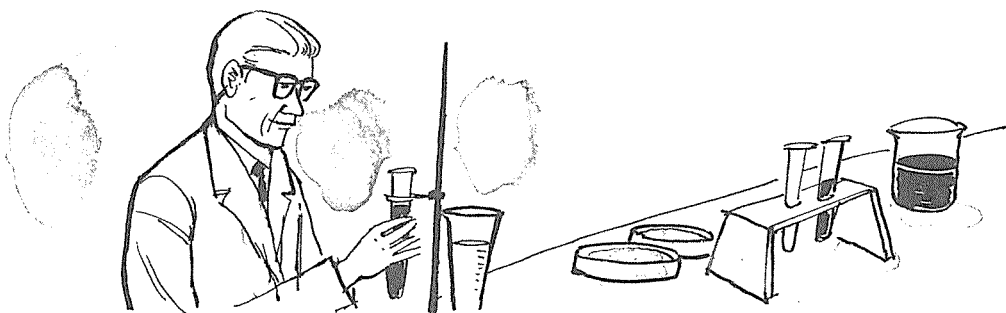
尹: 아, 그랬습니까. 처음 들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건의한 겁니까?

朴: 금년 2월17일자로 科學技術處長官, 에너지연구소소장, 韓電사장에게 正式으로 보냈습니다. 보낸 사람은 韓國科學史學會, 韓國原子力學會, 韓國原子力史資料센터의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그 學會理事會의 決議를 얻어서 보냈습니다.

尹: 지금 말씀하신 韓國原子力史資料센터는 누가 하는 겁니까?

朴: 제가 하는 겁니다. 1980년도에 韓國科學史學會 부속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 原子力事業의 初創期史資料를 수집정리해 두려고





고 物理科를 신설해 놓고 專任으로 이 科를 담당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大學으로 오라는 데 거절할 수 있어야지요. 그 때부터 연구소에 돌아간다는 생각을 버리고 대학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朴: 그래서 경희대학 副總長까지 하다가 그만두셨는데 몇 년 그곳에 있었습니까?

尹: 약 8년 있었습니다.

朴: 경희대학을 그만둔 것은 문선명목사가 大學校를 설립하는 계획 때문에 그만두신거지요?

尹: 그렇습니다. 그 대학교의 副總長으로 임명되면서 그만두었지요.

朴: 지금 校長으로 계시는 成和神學校하고 새로 大學校 설립계획하고 있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尹: 大學校 설립허가를 신청했는데 文敎部에서 許可해주시 않아서 할 수 없이 忠清南道 天安에 있는 그 神學校를 買入引受한거죠. 계획은 그 學校를 토대로해서 본래의 大學校 설립의 꿈을 실현시켜보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朴: 지금은 윤박사님께서 밖에서 바라보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연구소에 관해 평소애 생각하고 있던 이야기를 한마디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經濟開發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오늘날까지 많은 研究所를 설립운영하고 있는데, 이 때에 研究所 소장은 반드시 博士學位을 갖고 있고 또 이름있는 專門科學技術者를 택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政府出捐 研究所가 하나 생기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훌륭한 研究實績으로 名聲을 떨치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소장으로 모셔다가 責任을 맡기는 것이 常例로 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때에 所長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새로 설립하는 研究所일 경우에는 計劃을 세우고 豫算을 따고, 사람을 모으고 建設을 하고, 이러한 가운데 매일 매일 決裁를 하고, 會議를 主宰하고,

이런 일 저런 일 交涉을 하고, 出張을 가고, 이렇게 하다가 歲月이 어느 사이에 3년 5년 지나고 보면 과거의 그 훌륭한 연구실적을 냈던 그 우수한 능력이 다 녹이 슬고 딱딱한 연구보다 행정의 새로운 맛에 익숙해져서 연구와 행정의 중간에서 별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소장 자격에 대한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개인은 물론이지만 국가적인 손실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研究行政은 반드시 學位나 科學技術專門家나 하는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에게 맡기고 研究하는 사람은 研究할 힘과 능력이 있을 때까지 研究에 전념하게 하면서 그 研究所內 혹은 社會的인 待遇와 位置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연구소 人事行政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專門家가 소장이 되었을 때의 短點을 또 말한다면(물론 長點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自己專攻분야를 특별히 중요시하는 편견이 있고 또 그 권위 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려는 겸손한 태도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ogma가 생기고 행정의 시행착오가 있게 되는거라 봅니다. 이러한 생각은 科學技術處長官도 마찬가지입니다. 次官을 전문가로 하고 長官은 오히려 政治巨物이나 經濟閣僚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豫算을 많이 따는 역할과 힘있는 看板역할만 잘 해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尹: 그것은 동감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그렇게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일본도 原子力委員會의 委員長이 반드시 科學者가 아니고 소장의 경우도 또한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研究行政家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과 行政責任者와 研究責任者간의 책임한계를 어떻게 분명히 하고, 또 어떻게 서로 잘 타협하고 협력해 나가느냐



하는 것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研究行政責任者를 연구공로가 많고 연구에서 은퇴한 年長한 사람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지요.

朴: 끝으로 결론삼아 한마디 말씀해주시요.  
尹: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그만두었다는데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도 후회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 분규가 있을 때에 어떤 대의명분을 가지고 저항을 하고 반대한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를 인정하고 이해하여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인간자신에 연구관으로서의 결함이 있을 때에는 어떤 적극적인 옹호를 할 수 없었던거죠.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저 사람은 결국 윤세원의 배신자라고 나 자신보다 외부에서 그렇게 낙인을 찍고 나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어도 나는 그때나 오늘날까지 그 사람이 와서 무엇을 부탁하면 아무런 선입감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고 노력하여 주었음

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에게서 한번도 도움받은 일도 없지만 과거에 미안했다고 뉘우침을 들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직도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들을 행정책임상 혹은 업무책임상 미워했지 인간적인 면에서 미워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박철재 씨가 그만두고 최상업 씨를 소장으로 모실 때는 요즘 소위 말하는 집단지도 체계를 생각한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 자신도 크게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오히려 내부적인 큰 분규를 일으키고 불명예제대 했다는 것이 스스로 큰 유감이 되고 또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은 발전하는 우리나라 연구소가 겪어야 할 한 과정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자위도 해 봅니다. 다음에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 原子力文化財 保存에 관한 建議書

### 建議趣旨

1956年 文敎部技術教育局에 原子力課를 신설한 것은 「우리나라 原子力時代の 開幕」을 알리는 신호였다고 하면 1959年 原子力院 및 原子力研究所가 발족되고 최초의 研究用原子炉 TRIGA Mark-Ⅱ (100kw)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 原子力時代の 突入」을 선언한 하나의 획기적인 史實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원자력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은 당시에 침체되었던 우리 과학계에 새로운 활력과 생기를 불어 넣어준 동시에 후진들이나 일반國民들에게 과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첨단과학을 지향하는 우리의 분명한 결의와 확고한 踏躑臺를 만들어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더욱 1962년부터 계속된 經濟開發5個年計劃의 추진으로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다시 선진국으로 지향하게된 그 과학기술 인력의 母體도 바로 이러한 원자력사업과 깊은 연유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최초 研究用原子炉는 민족역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에 있어서 그 계기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첨단과학의 최초의 대표적인 상징으로도 누구나 크게 공감하고 자랑할만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0kw出力의 TRIGA Mark-Ⅱ 研究用 原子炉는 1969년에 우리 原子力研究官들의 자력으로 250kw로 出力增強시켰고 이러한 기술경험을 토대로 1972年 가능한 2MW의 TRIGA Mark-Ⅲ 研究用 原子炉의 建造는 그 설계·제작 및 建造에 있어서 30% 이상의 국산참여율을 높인바 있습니다.

한편 1975년 방사선가공처리의 산업화이용(醫藥製品的의 放射線滅菌, 합판의 表面塗裝處理, 織物의 品質改善, 農作物의 放射線品種改良, 각종의 重合化合物 개발등)을 위하여 도입 설치한 10만큐리의 Co-60 감마조사장치와 300 KeV 전자가속장치는 TRIGA Mark-Ⅱ, Ⅲ 研究用 原子炉와 더불어 우리나라 첨단원자력기술

연구소 운영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연구소가 산업계와 대학의 중간에 서서 대학교수들과 산업계의 연계로 산학협동의 대표적인 모델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중에서 연구소와 대학간의 연계는 어느 정도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구소를 가능하면 연구하려는 대학교수들에게 개방하고 또 연구관들과의 협동연구도 장려하여 대학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었는데, 산업계와의 관계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당시의 우리나라 산업계가 연구에 관심을 가질 만큼 성숙하고 발전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만 어쨌든 그러한 꿈은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정책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요즘보면 과학관계기관(연구소를 위시하여)의 책임자가 자주 바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사람이 언제나 오래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원자력연구소의 경우를 보면 너

무 자주 소장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 과학기술예산이라는 것이 GNP가 150~200불 되는 때에 연구개발투자비가 0.2%에 불과했는데, 그래도 요즘은 GNP가 2000~2500불이 되고 연구개발투자비가 2%를 넘어서 5%를 꿈꾸고 있는 실정이니 이것은 어쨌든 과학기술 행정책임자를 위시하여 모든 과학기술 연구자들의 큰 공로라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동안 혼자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과거의 여러가지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주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 그동안 상세히 말씀해주신 이야기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原子力歷史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 굳게 확신합니다. 성의껏 말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세원 편은 이것으로 끝냅니다.)

도입의 최초의 대표적인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것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상업적 원자력발전 및 방사선 산업적이용은 물론, 오늘날 모든 첨단과학기술의 先導의인 契機와 역할을 한 역사적인 科學文化財라 치칭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原子力創業에 종사했던 사람은 물론 오늘날까지 이에 관계했거나 관계하고 있는 많은 원자력인들은 前記한 시설들이 우리역사와 민족에 있어서 영원히 소중한게 보호 및 보존되어야 할 의의가 있고 가치있는 과학문화재임을 절실히 공감하고 이에 韓國科學史學會, 韓國原子力史資料센터 및 韓國原子力學會의 공동명의로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은 건의를 上申하는 바입니다.

### 建議事項

1. 現存하고 있는 TRIGA Mark-Ⅱ 및 Ⅲ 연구용 原子爐建物の 지역을 원자력문화재의 보존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곳에 上記 연구용원자로를 위시하여 10만 큐리 Co-60 감마照射施設과 300Kev 가속장치 등 원자력관계의 모든 문화재를 종합 보존할 것.

(폐기처분할 경우)

따라서 이러한 構想에 적합할 충분한 지역(坪數)을 미리 확보할 것.

2. TRIGA Mark-Ⅱ 연구용 원자로건물에 부설된 모든 연구실은 다시 개조하여 원자력연구의 초창기부터 사용했던 모든 연구기기, 사진, 기록등 관계자료의 전실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것.
3. 現存하고 있는 TRIGA Mark-Ⅱ 연구용 원자로 건물을 『原子力記念館』으로 개칭하고 이 지역을 후진들의 훌륭한 원자력 교육장소 및 원자력 계몽장소로 발전시킬 것.(TRIGA MARK-Ⅲ도 폐로할 경우 동일하게 보존 이용할 것)
4. 이 지역 정원에 모든 원자력 관계인들의 성급에 의한 상징적인 원자력기념탑을 건립할 것.
5.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속히 原子力文化財保存委員會(가칭)를 구성 운용할 것.

1987년 2월 일

韓國科學史學會  
韓國原子力學會  
韓國原子力史資料센터

\*本 建議書는 1987년 2월 17일 科學技術處長官, 韓國에 너지(研)所長, 韓國電力公社社長 앞으로 發送했음.